

# 광주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 '특·광역시 2위'

**광주연구원, '문화기반시설 현황' 미술관 9.78개 1위...10년간 2배↑ 공연문화시설 평균 접근성 5.76km 만족도 등 질적지표 제고 전환해야**

광주지역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특·광역시 8곳 중 세종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광주 문화기반시설 현황에서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1인당 문화예술시설 이용 횟수, 문화시설 평균 접근성 등을 살펴봤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전국문화기

반시설 총량'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은 세종시(67.78개)에 이어 광주(54.51개), 서울(47.62개), 부산(43.1개), 인천(42.8개), 대전(42.18개), 울산(41.42개), 대구(40.19개) 등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미술관은 인구 100만명당 9.78개로 2위인 서울의 4.56개보다 크게 앞섰다. 다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18.87개(특·광역시 3위), 박물관 9.08개(특·광역시 6위) 등으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미술관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10년간 문화기반시설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은 2013년 17개에서

2023년 27개로 58.8% 증가, 미술관은 7개에서 14개로 100% 증가, 박물관은 9개에서 13개로 44.4% 증가, 문예회관은 7개에서 8개로 14.3% 증가했다.

연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3년 도서관 이용자 수는 453만237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이용자 수인 541만4641명의 84% 수준이었고, 미술관 이용자 수는 22만8555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이용자 수인 27만2621명의 84% 수준이며, 박물관 이용자 수는 103만4766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이용자 수인 131만3795명의 79% 수준이었다.

1년간 1인당 박물관 관람 횟수는 0.7회로 1위인 서울(1.7회)과 1회 낮은 2위에

올랐으며, 1년간 1인당 미술관 관람 횟수는 광주가 0.2회로 서울(0.6회), 부산(0.3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다만, 장서대출 수는 광주시가 1.9권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으며, 1위 세종(5.5권)과는 3.6권 차이가 났다.

이밖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2021 국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연문화시설 평균 접근성은 광주시가 5.76km로 특·광역시 중 5위이며, 도서관의 평균 접근성은 2.3km로 3위에 해당했다.

김광욱 선임연구원은 "광주시의 문화기반시설은 양적 측면에서 어디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분하며, 열심히 조성해 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광주시

의 정책이 이용자 수 증가나 이용자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 등 질적 지표를 올리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문화기반시설의 이용객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단순히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OTT와 전자책 이용 활성화 등 팬데믹을 거치면서 시민의 이용 행태 자체가 바뀐 것일 수도 있다"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람 시설의 넓고 쾌적한 관객 동선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신규 10곳 지정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자격 부여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 인증을 받아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환경친화마을 10곳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정된 유기농 생태마을은 여수 화산마을, 곡성 전기마을, 화순 선화동마을, 영암 주암마을, 남송정마을, 천해마을, 유천마을, 함평 옥동마을, 영광 사산마을, 장성 상도마을이다.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요건은 친환경인증 농가 10호 이상, 인증면적 10ha 이상으로 이 중 유기농 인증면적이 30% 이상

인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이다.

이들 마을엔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장비 등 최대 5억원을 지원 하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과, 마을 주민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마을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은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로 지역공동체가 더욱 발전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라며 "이와 연계한 치유농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서구장애인체육대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과 김현성 사무처장 등이 21일 서구 풍암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회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어울림대회에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번 어울림대회에는 생활체육, 탁구, 파크골프, 배드민턴 4개종목 38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광주 서구 제공

## 광주시, '불법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실시

무신고 영업 등 5개소 적발

광주시는 지역 미용업소 3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미용업소 등 불법 영업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

광주시는 공중위생업소 중 미용업소에 대한 신규 신고 등록수가 최근 2년 동안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무신고 영업 등 불법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업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A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미용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장 내 공간 일부를 활용해

숍인숍(shop in shop) 개념으로 네일숍을 무신고로 운영했다. B업소는 미용업 변경신고(업종 추가) 없이 일반미용실에서 머리손질과 네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미이행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광주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 조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형사처분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직접 대표자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 전남도, 나주서 '평생학습박람회' 연다

25~26일 빛가람호수공원 일대 'OK Now 평생학습 전남' 주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야외무대) 일원에서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제4회 전남도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7년부터 개최한 평생학습박람회는 전남의 평생학습 관계자가 모여 1년간의 성과와 정보를 한눈에 보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나주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박람회는 전남의 새로운 브랜드(BI)를 반영한 'OK Now 평생학습 전남'을 주제로 홍보·체험관, 작품전시, 평생학습 동아리 경진대회,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홍보·체험관은 가상현실(VR)체험, 3D펜, 테라리움 만들기 등 110여 개 등으로 구성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토크콘서트에는 방승인 박경림을 초청해 '우리의 꿈, 다시 꿈이다. 새로운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배움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펼치는 등 관람객과 소통하는 자리가 진행된다. 또한 전남행복버스, 디지털배움버스, 청소년마

음지킴이버스를 통해 키오스크 체험, 혈압·혈당 체크, 심리상담 등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성인문해 시화전 작품 115점, 평생학습 동아리 작품 10점 등 작품 전시와 함께 평생학습 동아리 경진대회, 평생학습인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람회 개막일인 25일 오후 2시 성인문해시화전 시상식과 평생학습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식도 열린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민이 평생학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 한강 작가 소설 원작 영화 특별상영

25일·11월5일 독립영화관서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작품을 스크린으로 만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및 광주독립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홍터' 두 편을 특별상영한다.

영화는 오는 25일과 11월5일 두차례 광주시 동구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되며, 영화관 누리집(gift4u.or.kr)에서 예매 가능하다. 특히 11월5일에는 영화 상영 후 씨네트크 프로그램이 마련돼 한강의 문학세계와 영화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갖는다.

노병하 기자

부커상을 수상한 동명 소설 원작의 '채식주의자' (2010)는 어느 날 갑자기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주의를 선언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억압과 인간 본성의 대립을 담은 작품으로 선댄스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받은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홍터' (2011)는 중편소설 '아기 부처'를 원작으로 한다. 감정이 메마른 여자와 지울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완벽주의에 집착하는 남자 사이의 위태로운 결혼생활을 묘사한 작품이다.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와 트라우마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등 한강 문학의 감성을 영화적 언어로 풀어낸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 광주시 "지역기업 AI 제품·기술 체험하세요"

AI 제품·서비스 이용자 모집  
이용료 90% 상당 바우처 지급

광주시는 지역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시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이달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시민 이용자를 2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이용자 모집은 △비즈니스 △의료·보건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의 총 4개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진행되며, 제품과 서비스 이용료의 90%에 상당하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비즈니스분야에서는 고스트패스의 '인

공지능을 활용한 신원확인 서비스'를, 의료·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에이아이오디토리리의 '정력 장애 진단 지원 및 청능 재활 앱'과 영엔의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 및 진단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관광·스포츠분야에서는 ㈜인디제이의 '사용자의 실시간 감정인식 기반 음악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시민 인공지능(AI) 바우처 누리집(www.aicvouche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와 서비스 등록기업이 연결(매칭)되면 이용권(이용료의 90%)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34개의 광주기업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선정돼 시민 1300여명이 이용권(바우처)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총 28개 광주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18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의 생활 속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